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분석

김사영^{1*}, 장준복²

¹대구과학대학교 호텔관광과, ²김책공업종합대학 지질탐사학부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Priority Order on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Pla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a-Young Kim^{1*} and Jun-Bok Jang²

¹Department of Hotel & Tourism, Taegu Science University

²School of Geological Investigation,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요약 본 논문은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남한과 북한 및 중국의 관광자원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효표본은 252부이었고, 남한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154부, 중국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98부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별 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 남한은 개발내용이 우선순위 1위였고, 북한은 개발주체가 우선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관광자원개발 평가대상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개발내용 평가대상 가운데서 남한은 문화관광대상개발 북한은 자연관광대상개발, 개발목표 평가대상 가운데서는 남북한이 관광경제성, 개발형태 평가대상 가운데서 남한은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 북한은 관광특구(단지)개발, 그리고 개발주체 평가대상 가운데서는 남북한 모두 제3섹터형이 우선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iorities with respect to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pla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Through a preliminary investigation 287 lists of questions were distributed from May 14, 2012 to December 5, 2012 and from among them 252 lists were used. Expert Choice 11.5 was used to do pairwise comparisons and priorities assessment. Based up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the priority order sets of the domain of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plan should be related to the development contents, the development objects, the development patterns, and the development subjects in the South Korea. Those should be related to the development subjects, the development objects, the development contents, and the development patterns in the North Korea.

Key Words :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South-North Korean Tourism,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1. 서론

관광개발 대상인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은 거시적으로 관광의 시대적 배경과 국가별 관광자원개발 계획에 따라 공통되는 부문들도 있고, 미시적으로는 차이를 보이

는 부문들도 있다. 북한의 관광자원개발계획이 남한만큼 체계적이고 세부적이지는 않아도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들이 수립·진행되고 있음을 공동연구자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관광자원개발 계획 내용으로 나진선봉지구개발에 따른 명천지역 별장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 K1A5A2000015)

*Corresponding Author : Sa-Young Kim (Taegu Science University)

Tel: +82-53-320-1086 email: sykim@tsu.ac.kr

Received January 3, 2013

Revised (1st January 25, 2013, 2nd February 1, 2013, 3rd February 5, 2013)

Accepted February 6, 2013

지대(휴양지대) 관광자원개발사업, 영화촬영지 세트장 관광자원개발을 국가사업으로 추진, 사리원 민속촌개발사업(고구려식 민속촌으로 진행된 관광자원개발사업), 관광특구 및 유명지에 대한 자체 관광자원개발계획 수립 등이 제시되었고, 향후 북한도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여 개발계획에 실제 적용하고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또한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북한관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은 관광자원개발계획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나 연구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광자원개발 계획 특성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광의적인 측면에서 관광자원개발계획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향후 북한의 관광자원개발계획 접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는 본 연구는 남북한의 관광자원개발 현상에 대한 접근과 계획특성에 대한 영향관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남북한에 대한 정확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을 구명하고, 계획특성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관광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관광자원개발 계획 관련연구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 영역별 기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각 영역별로는 어떤 평가요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명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 영역에 따른 영역별 기준, 각 영역별 평가요소들이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있어서 각각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평가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관광개발 대상인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 영역과 영역별 평가요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과 관련되는 영역과 각 평가요소들의 역할 등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를 하였다. 동시에 남북중 관광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방법(empirical analysis method)도 병행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남북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남북관광 관련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접근이나 관광사업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

는데 있었다. 이는 북한의 관광지 현황·관광자원 해설·관광상품 소개, 북한의 외국인 출입국절차, 남북관광 교류사업의 협력방안, 특수목적관광(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분석, 통일과 관광개발 등을 연구영역으로 하고 있다[1]. 관광자원개발 관련연구로 김성일[2]은 DMZ를 생태관광 대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DMZ 주변은 농촌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의 농촌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농촌지역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농촌 고유의 독특한 체험활동을 개발하며, 농촌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재발굴하는 상향식개발방식의 관광자원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봉·이승복·김은정[3]은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를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으로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사업과 문화유적지 등 주요관광지 탐사사업을 통한 관광자원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기홍[4]은 한반도관광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북한의 관광개발지역 확대와 관광자원개발 의지, 대북관광에 대한 남측의 투자관심 증대를 제시하였고, 제약요인으로는 관광기반시설 부족과 관광객 수용 한계, 관광교통시스템에서 연계교통체계 부족,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개발 역량 미약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관광공사[5]는 북한의 주요 관광지로 평양지역, 백두산지구, 개성지구, 묘향산지구, 신의주·의주지구, 남포지구, 구월산지구, 금강산지구, 칠보산지구, 나진·선봉지구 등을 제시하고, 향후 관광자원개발 대상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승재[6]는 남북관광의 새로운 상품개발 대안으로 DMZ를 평화와 생명시대로의 관광자원화를 제안하면서 평화벨트 횡단투어 관광상품과 코스개발을 위하여 DMZ를 역사·생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로 경쟁력있는 체험관광상품개발이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진철[7]은 신의주 관광특구개발 전략으로 한·중·조 협력에 의한 관광개발, 신의주와 단둥 간 접근성 강화를 고려한 관광개발, 항공물류 인프라와 직항노선의 연계, 역사관광의 전초기지 구성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8]은 북한의 특구개발전략과 경기도의 대응방안에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개발의 배경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통일부[9]와 통일연구원[10]에 의하면 북한의 사회 특성상 사적, 유적, 문화재, 자연경승, 향토특산물 등의 관광자원이 대체로 잘 보호·관리되고 있고, 현재 북한이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곳은 평양과 그 주위의 성곽, 사찰, 동명왕릉, 단군릉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대표적 사찰은 묘향산의 보현사와 개성의 관음사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철원[11], 한국관광진흥연구원[12]은 북한의 관광활성화 노력으로

외국인전용 관광구역의 설정과 관광사업의 협력기반 구축, 관광편의를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 확장 등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지역 및 루트의 다변화, 관광형태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김사영·장준복[1]은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의 특징을 구명하고자 국내·외 관광개발정책 영역별 접근기준(국내 기준으로 관광경제성, 삶의 질, 정보교환, 복지·환경개선과 국외 기준으로 국제친선 증진, 외래관광수용능력 향상, 국민경제 향상, 관광정보체계 확립)을 설정하고, 접근기준별 평가대상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2.2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 영역과 분석체계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 영역은 개발형태, 개발주체, 개발내용, 개발목표로 구성되었다. 우선 개발형태는 관광자원개발 대상지에 대한 관광자원 특성·관광공간 규모·관광수요시장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13]. 관광자원개발 형태에 따른 평가요소로 지역관광자원개발, 광역관광자원개발, 관광특구(단지)개발,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 등을 고찰하였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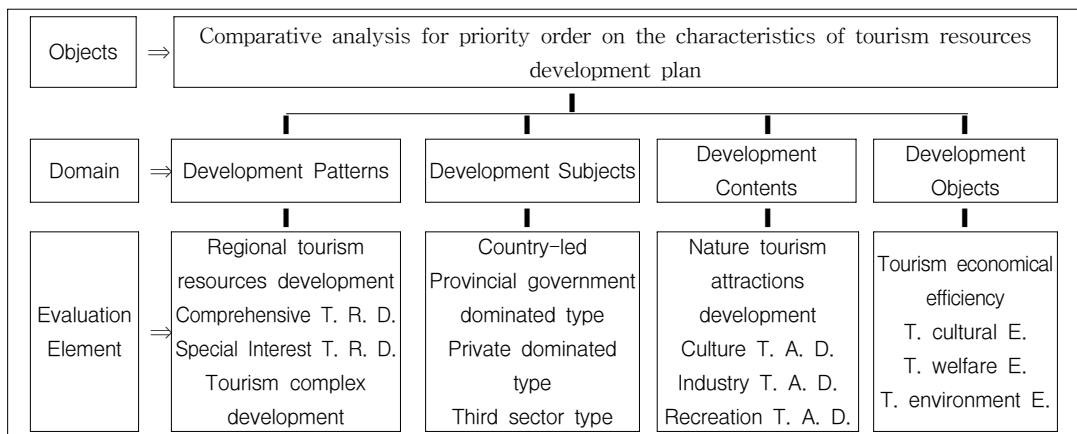
둘째, 개발주체는 관광자원개발 투자규모 및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남북한은 정치적·경제적 체계가 서로 달라서 개발주체 설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17]. 관광자원개발 주체에 따른 평가요소로 국가주도형, 지방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제3섹터형(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조합된 개발형태) 등을 고찰하였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16,18-19].

셋째, 개발내용에 있어서 북한은 아직도 관광자원개발 대상설정이나 계획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체험·명소·이벤트·쇼핑 등 구체적인 관광자원개발 접근이 어렵다

[20-21]. 관광자원개발 내용에 따른 평가요소로 자연관광대상개발, 문화관광대상개발, 산업관광대상개발, 위락관광대상개발 등을 고찰하였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22].

마지막으로 관광자원개발 목표는 남북한 모두 관광자원개발 형태, 주체,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개발 기대효과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23-26]. 관광자원개발 목표에 따른 평가요소로 관광경제성, 관광문화성, 관광복지성, 관광환경성 등을 고찰하였고, 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남북한 모두 관광경제성 평가요소와 관련하여 관광대상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재정수입의 증대, 지역산업의 구조 전환 및 다각화 자극,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역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토지이용계획상의 효율성 향상 등이 고려될 수 있다[27-28]. 관광문화성 평가요소와 관련하여 문화정체성 향상, 지역주민에게 볼거리·여가기회 제공, 감상과 휴식을 겸한 문화관광공간 조성, 향토민속문화의 보급으로 애향심과 자부심 증대 등이 고려될 수 있다[28-29]. 관광복지성 평가요소와 관련하여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쾌적성 유지 및 제공, 지역주민 생활의 질 향상 등이 고려될 수 있다[30-31]. 관광환경성 평가요소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자원의 보전·발굴·복원, 자연관광자원의 보호·보전, 쾌적성 유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32].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들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계획특성 영역 및 각 영역별 평가요소들에 대한 고찰과 함께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 영역별 평가요소들에 대한 관계를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통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관련부문들의 특성과 관계를 구명하고자 분석계층 구조를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1] Analytic hierarchy structure for priority order on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plan

3. 연구방법

3.1 조사설계

설문지 구성은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기초하였다. 이론적 고찰에 기초한 선행연구 결과와 관광자원개발계획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 항목과 평가체계 설정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도 조사설계(설문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북한 공동연구자와 협의결과 북한 설문지에 사용된 일부 용어들은 북한의 관광현상에 부합되도록 구성하였다.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별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조사설계에서 우선 계획특성 영역을 개발형태, 개발주체, 개발내용, 개발목표로 대별하였고, 영역별로 평가요소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한(북한) 개발형태 영역의 평가요소로는 지역관광자원개발(소규모관광자원개발), 광역관광자원개발(대규모관광자원개발), 관광특구(단지)개발,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이 대상이었다. 개발주체 영역의 평가요소로는 국가주도형, 지방정부주도형(지방행정단위주도형), 민간주도형(외국인투자형), 제3섹터형(합작투자형)이 대상이었다. 개발내용 영역의 평가요소는 자연관광대상개발(자연관광자원·상품개발), 문화관광대상개발(문화관광자원·상품개발), 산업관광대상개발(산업관광자원·상품개발), 위락관광대상개발(위락관광자원·상품개발)로 구성되었다. 개발목표 영역의 평가요소로는 관광경제성, 관광문화성, 관광복지성, 관광환경성이 대상이었다.

3.2 자료수집

남북한 관광자원개발계획에 미치는 각각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의 조사방법, 조사대상, 표본크기, 조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 전화조사, 직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 남한에서는 관광자원개발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원, 공무원과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 등의 공공부문 관련전문가, 그리고 민간부문 관련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 관련조사는 중국 내 북한 관광개발에 많은 관련정보를 가지고 있는 연변대학교 교수를 통하여 연변대학교를 방문한 북한 관광개발관련 전문가와 중국 내 북한 관광개발관련 전문가들인 연변대학교 등 관련분야 학자, 용정시·연길시·단둥시 지역의 관광국·교육국·국토자원국 등 공공부문 관광관련 전문가(북한은 중국식 관광자원개발계획을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전문가 집단임), 북한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320부이었고, 회수된 설문지 283부 가운데 부적절한 설문지 31부를 제외한 252

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남한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154부, 중국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98부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15일로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3.3 분석방법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였다. AHP기법의 적용 분야는 교통, 입지 등을 비롯한 경제문제에서부터 마케팅 등의 경영문제, 교육·복지·도시·환경·건설·보건·농업 등의 사회문제, 신제품개발·컴퓨터정보 등의 기술문제까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33]. AHP를 활용한 관광개발 프로젝트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34], AHP를 이용한 호텔 레스토랑 선택속성의 우선순위 분석[35], AHP를 활용한 농촌관광마을 사업성과지표 개발[36], AHP기법을 활용한 지역관광개발사업 특화계획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37],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요인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분석[1], 도시관광개발에 있어서 관광서비스 차별화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연구[38], AHP를 응용한 컨벤션입지선택 의사결정 접근방법[39] 등의 연구에 활용되었다.

분석프로그램은 Expert Choice 11.5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AHP기법에서는 비일관성비율을 비교수행자의 판단 자체에서 생기는 비일관성뿐 아니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한다. 비일관성비율은 응답에 있어서의 논리적 모순을 잡아내어 도출된 결론의 신뢰성을 판단하게 한다. 설문지의 비일관성비율이 0.1보다 작아야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비일관성비율이 0.1보다 크게 나타나면 응답자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어 설문을 재조사하도록 권장하나 본 분석에서는 부적절한 응답으로 처리하였다.

4. 분석결과

4.1 대상자의 특성

전문가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전체252명 가운데 남한은 154명, 북한·중국은 98명이었다. 남한의 관광 관련 학자와 연구원 50명(33%), 공공부문전문가 59명(38%), 민간전문가 45명(29%)으로 나타났고, 관련분야 경력은 5년 미만인 27명(18%), 5년에서 10년 미만이 55명(36%), 10년에서 15년 미만이 33명(21%), 15년 이상이 39명(25%)이었다. 북한·중국의 관광관련 학자와 연구원은 53명(54%), 공공부문전문가는 36명(37%), 민간전문가는 9명(9%)으로 나타났고, 관련분야 경력은 5년 미만이 18명(18%), 5년에서 10년 미만이 25명(26%), 10년에서

[Table 1]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plan domains

Division		Development Patterns	Development Subjects	Development Contents	Development Objects
South Korea	Development Patterns		2.12388	(2.97239)	(1.61048)
	Development Subjects			(2.84126)	(1.91634)
	Development Contents				1.59378
	Development Objects				
North Korea	Development Patterns		(1.96556)	(2.41872)	(1.56062)
	Development Subjects			1.83779	1.40838
	Development Contents				(1.41)
	Development Objects				

주) Incon: South Korea 0.02, North Korea 0.03

15년 미만인 35명(36%), 15년 이상이 20명(20%)이었다.

4.2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 특성분석

4.2.1 계획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분석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간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 분석한 결과 남한에서는 개발형태가 개발주체보다 2.12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내용은 개발형태보다 2.97배만큼 중요하고, 개발주체 보다 2.84배만큼 중요하며, 개발목표 보다 1.59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목표는 개발형태 보다 1.61배만큼 중요하고, 개발주체 보다 1.91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개발주체가 개발형태 보다 1.97배만큼 중요하고, 개발내용 보다 1.84배만큼 중요하며, 개발목표 보다 1.41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내용이 개발형태 보다 2.42배만큼 중요하고, 개발목표도 개발형태 보다 1.56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1과 같다.

4.2.2 계획영역별 우선순위분석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남한에서는 개발내용이 상대적 중요도 0.430(이는 계획영역 네 가지 가운데 상대적 중요도 비중이 43%)으로 우선순위 1위였다. 우선순위 2위는 개발목표로 상대적 중요도 0.262이었다. 개발형태가 상대적 중요도 0.185로 우선순위 3위이고, 마지막은 개발주체로 상대적 중요도 0.123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개발주체가 상대적 중요도 0.354로 우선순위 1위였다. 우선순위 2위는 개발목표로 상대적 중요도 0.264이었다. 개발내용이 상대적 중요도 0.237로 우선순위 3위이고, 마지막은 개발형태로 상대적 중요도 0.145로 분석되었다.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별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보면, 남한도 과거에는 개발주체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개발내용과 개발목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와 일치한다. 반면에 북

한은 지금까지 제한된 국내 관광자원개발 계획을 추진하였고, 외국인관광은 관광서비스업 위주로 발전시켜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관광자원개발 계획을 추진시켜왔기 때문에 개발주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Priority order by plan domains

Division	South Korea		North Korea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Development contents	.430	1	.237	3
Development objects	.262	2	.264	2
Development patterns	.185	3	.145	4
Development subjects	.123	4	.354	1

주) Incon: South Korea 0.02, North Korea 0.03

4.3 관광자원개발 평가대상 특성분석

4.3.1 개발형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 가운데 평가대상인 개발형태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남한에서는 지역관광자원개발이 광역관광자원개발 보다 1.07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특구(단지)개발은 지역관광자원개발 보다 1.50배만큼 중요하고, 광역관광자원개발 보다 1.51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은 지역관광자원개발 보다 1.87배만큼 중요하고, 광역관광자원개발 보다 1.43배만큼 중요하며, 관광특구(단지)개발 보다 1.21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관광특구(단지)개발이 지역관광자원개발 보다 2.52배만큼 중요하고, 광역관광자원개발 보다 3.61배만큼 중요하며,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 보다 2.43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은 광역관광자원개발 보다 2.99배만큼 중요하고, 지역관광

[Table 3]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development patterns

Division		Regional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Comprehensive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Tourism complex development	Special interest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South Korea	Regional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1.0668	(1.4963)	(1.87421)
	Comprehensive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1.51362)	(1.42867)
	Tourism complex development				(1.20759)
	Special interest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North Korea	Regional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1.20615	(2.52283)	(1.61129)
	Comprehensive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3.61408)	(2.9893)
	Tourism complex development				2.42592
	Special interest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주) Incon: South Korea 0.00, North Korea 0.02

자원개발 보다 1.61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3과 같다.

한편 관광자원개발 형태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남한에서는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327(이는 개발형태 네 가지 가운데 상대적 중요도 비중이 32.7%)로 우선순위 1위였다. 우선순위 2위는 관광특구(단지)개발로 상대적 중요도 0.284이었다. 광역관광자원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198로 우선순위 3위이고, 마지막은 지역관광자원개발로 상대적 중요도 0.123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관광특구(단지)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470으로 우선순위 1위였다. 우선순위 2위는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로 상대적 중요도 0.258이었다. 지역관광자원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158로 우선순위 3위이고, 마지막은 광역관광자원개발로 상대적 중요도 0.114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관광특구(단지)개발 사례가 많고, 관광특구 및 유명지(관광단지)에 대한 자체 관광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근 칠보산지역 관광자원개발 및 명천지역 별장지대(휴양지대) 관광자원개발도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관광특구 개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Priority order by development patterns

Division	South Korea		North Korea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Special interest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327	1	.258	2
Tourism complex development	.284	2	.470	1
Comprehensive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198	3	.114	4
Regional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191	4	.158	3

주) Incon: South Korea 0.00, North Korea 0.02

4.3.2 개발주체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 가운데 평가대상인 개발주체 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남한에서는 국가주도형이 민간주도형 보다 1.30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정부주도형은 민간주도형 보다 1.33배만큼 중요하고, 제3섹터형 보다 1.04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섹터형은 민간주도형 보다 1.70배만큼 중요하고, 국가주도형 보다 1.20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제3섹터형(합작투자형)이 국가주도형 보다 1.83배만큼 중요하고, 지방정부주도형(지방행정단위주도형) 보다 4.44배만큼 중요하며, 민간주도형(외국인투자형) 보다 3.11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주도형(외국인투자형)은 국가주도형 보다 1.34배만큼 중요하고, 지방정부주도형(지방행정단위주도형) 보다 3.34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주도형은 지방정부주도형(지방행정단위주도형) 보다 4.62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5와 같다.

한편 관광자원개발 주체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남한에서는 제3섹터형이 상대적 중요도 0.292(이는 개발주체 네 가지 가운데 상대적 중요도 비중이 29.2%)로 우선순위 1위였다. 우선순위 2위는 지방정부주도형으로 상대적 중요도 0.277이었다. 국가주도형이 상대적 중요도 0.242로 우선순위 3위이고, 마지막은 민간주도형으로 상대적 중요도 0.189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제3섹터형(합작투자형)이 상대적 중요도 0.464로 우선순위 1위였다. 우선순위 2위는 국가주도형으로 상대적 중요도 0.238이었다. 민간주도형(외국인투자형)이 상대적 중요도 0.227로 우선순위 3위이고, 마지막은 지방정부주도형(지방행정단위주도형)으로 상대적 중요도 0.071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도 대부분이 국가주도형이지만 최근에 제3섹터형(합작투자형)에 대한 접근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합작사업의 대상분야로 관광부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5]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development subjects

Division		Country-led type	Provincial government dominated type	Private dominated type	Third sector type
South Korea	Country-led type		(1.1526)	1.29913	(1.20337)
	Provincial government dominated type			1.32714	1.04068
	Private dominated type				(1.69721)
	Third sector type				
North Korea	Country-led type		4.61995	(1.36677)	(1.82757)
	Provincial government dominated type			(3.36583)	(4.43797)
	Private dominated type				(3.11234)
	Third sector type				

주) Incon: South Korea 0.00, North Korea 0.05

[Table 6] Priority order by development subjects

Division	South Korea		North Korea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Third sector type	.292	1	.464	1
Provincial government dominated type	.277	2	.071	4
Country-led type	.242	3	.238	2
Private dominated type	.189	4	.227	3

주) Incon: South Korea 0.00, North Korea 0.05

4.3.3 개발내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 가운데 평가대상인 개발내용 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남한에서는 자연관광대상개발이 산업관광대상개발 보다 1.93배만큼 중요하고, 위락관광대상개발 보다 1.70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관광대상개발은 산업관광대상개발 보다 2.47배만큼 중요하고, 위락관광대상개발 보다 2.26배만큼 중요하며, 자연관광대상개발 보다 1.09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락관광대상개발은 산업관광대상개발 보다

1.15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자연관광대상개발이 문화관광대상개발 보다 3.56배만큼 중요하고, 산업관광대상개발 보다 5.06배만큼 중요하며, 위락관광대상개발 보다 4.92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관광대상개발은 산업관광대상개발 보다 4.13배만큼 중요하고, 위락관광대상개발 보다 2.46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락관광대상개발은 산업관광대상개발 보다 1.53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7과 같다.

한편 관광자원개발 내용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남한에서는 문화관광대상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367(이는 개발내용 네 가지 가운데 상대적 중요도 비중이 36.7%)로 우선순위 1위였다. 우선순위 2위는 자연관광대상개발로 상대적 중요도 0.308이었다. 위락관광대상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173으로 우선순위 3위이고, 마지막은 산업관광대상개발로 상대적 중요도 0.153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자연관광대상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574로 우선순위 1위였다. 우선순위 2위는 문화관광대상개발로 상대적 중요도 0.241이었다. 위락관광대상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108으로 우선순위 3위이고, 마지막은 산업관광대상개발

[Table 7]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development contents

Division		Nature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Culture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Industry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Recreation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South Korea	Nature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1.09114)	1.93117	1.7006
	Culture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2.46908	2.25951
	Industry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1.14515)
	Recreation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North Korea	Nature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3.55605	5.06133	4.91993
	Culture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4.12948	2.45512
	Industry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1.5287)
	Recreation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주) Incon: South Korea 0.00, North Korea 0.04

발로 상대적 중요도 0.078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이 자연관광대상을 개발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관광대상개발의 대표적 사례로는 사리원 민속촌개발사업이 있는데, 이는 고구려식 민속촌 관광자원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락관광대상개발로는 나진선봉지구개발에 따른 칠보산지역에 대한 위락관광자원개발과 명천지역 별장지대(휴양지대)개발 등이 사례라고 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8과 같다.

[Table 8] Priority order by development contents

Division	South Korea		North Korea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Culture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367	1	.241	2
Nature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308	2	.574	1
Recreation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173	3	.108	3
Industry tourism attractions development	.153	4	.078	4

주) Incon: South Korea 0.00, North Korea 0.04

4.3.4 개발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 가운데 평가대상인 개발목표 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남한에서는 관광경제성이 관광문화성 보다 2.08배만큼 중요하고, 관광복지성 보다 2.34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문화성은 관광복지성 보다 2.34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환경성은 관광복지성 보다 1.53배만큼 중요하고, 관광문화성 보다 1.27배만큼 중요하며, 관광경제성 보다 1.20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도 관광경제성이 관광문화성 보다 4.55배만큼 중요하고, 관광복지성 보다 4.28배만큼 중요하며, 관광환경성 보다 2.90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

광환경성은 관광문화성 보다 2.46배만큼 중요하고, 관광복지성 보다 4.05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문화성은 관광복지성 보다 1.91배만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9와 같다.

한편 관광자원개발 목표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남한에서는 관광경제성이 상대적 중요도 0.336(이는 개발목표 네 가지 가운데 상대적 중요도 비중이 33.6%)으로 우선순위 1위였다. 우선순위 2위는 관광문화성으로 상대적 중요도 0.285이었다. 관광복지성이 상대적 중요도 0.239로 우선순위 3위이고, 마지막은 관광환경성으로 상대적 중요도 0.141로 분석되었다. 북한에서도 관광경제성이 상대적 중요도 0.535로 우선순위 1위였다. 우선순위 2위는 관광환경성으로 상대적 중요도 0.262이었다. 관광문화성이 상대적 중요도 0.122로 우선순위 3위이고, 마지막은 관광복지성으로 상대적 중요도 0.082로 분석되었다. 개발 목표별 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는 남북한 모두 관광경제성이 우선순위 1위였고, 북한은 관광환경성이 우선순위 2위로 나타났다. 북한의 관광자원개발 목표 가운데 관광환경성과 관련된 법규와 내용을 보면 조선물질문화유물 보존회규정, 보물,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보존령 및 시행규칙, 토지법, 환경보호법과 산림관리규정, 금강산보호관리규정 등에 그 배경이 있다고 하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10과 같다.

[Table 10] Priority order by development objects

Division	South Korea		North Korea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Tourism economical efficiency	.336	1	.535	1
Tourism cultural efficiency	.285	2	.122	3
Tourism welfare efficiency	.239	3	.082	4
Tourism environment efficiency	.141	4	.262	2

주) Incon: South Korea 0.04, North Korea 0.04

[Table 9]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development objects

Division		Tourism economical efficiency	Tourism cultural efficiency	Tourism welfare efficiency	Tourism environment efficiency
South Korea	Tourism economical efficiency		2.07588	2.24477	(1.2041)
	Tourism cultural efficiency			2.34404	(1.12655)
	Tourism welfare efficiency				(1.52579)
	Tourism environment efficiency				
North Korea	Tourism economical efficiency		4.55279	4.28169	2.90255
	Tourism cultural efficiency			1.90728	(2.45612)
	Tourism welfare efficiency				(4.04512)
	Tourism environment efficiency				

주) Incon: South Korea 0.04, North Korea 0.04

5. 결론

남북한 관광개발 대상인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대한 비교연구는 현재 북한관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관광자원개발계획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나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내용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거시적 측면의 비교분석 연구결과는 향후 학술적·실무적으로 북한의 관광자원개발계획 접근에도 활용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명하고자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 평가대상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였다.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별 우선순위 분석결과 남한에서는 개발내용이 상대적 중요도 0.430으로 우선순위 1위였고, 이어 개발목표, 개발형태, 개발주체 순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에서는 개발주체가 상대적 중요도 0.354로 우선순위 1위였고, 이어 개발목표, 개발내용, 개발형태 순으로 평가되었다.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명승지, 명산과 강, 바다, 공장 및 농장 등을 기본으로 한 제한된 국내 관광자원개발 계획을 추진하였고, 외국인관광은 관광서비스업 위주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광자원개발 계획을 추진한 역사는 짧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에서 관광이라 하면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경관, 명승고적, 역사유적, 주민경제의 발전면모 등을 구경하고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 인식하였지, 관광활동을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1].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도 국가주도로 나진선봉지구 내 관광자원개발, 청진과 칠보산 관광자원개발, 평양과 금강산관광자원개발 등 외국인대상 국내 관광자원개발로 관광상품화가 활발해지면서부터 관광자원개발 계획에 대한 접근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은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개발내용 평가대상 가운데 남한에서는 문화관광대상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367로 우선순위 1위였고, 이어 자연관광대상개발, 위락관광대상개발, 산업관광대상개발 순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에서는 자연관광대상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574로 우선순위 1위였고, 이어 문화관광대상개발, 위락관광대상개발, 산업관광대상개발 순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이 자연관광대상을 개발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관광대상개발의 대표적 사례로는 사리원 민속촌개발사업이 있는데, 이는 고구려식 민속촌 관광자원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락관광대

상개발로는 나진선봉지구개발에 따른 칠보산지역에 대한 위락관광자원개발과 명천지역 별장지대(휴양지대)개발 등이 사례이다. 산업관광대상개발로는 개마고원 감자를 관광상품화한 사례가 있다.

둘째, 개발목표 평가대상 가운데 남한에서는 관광경제성이 상대적 중요도 0.336으로 우선순위 1위였고, 이어 관광문화성, 관광복지성, 관광환경성 순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에서도 관광경제성이 상대적 중요도 0.535로 우선순위 1위였고, 이어 관광환경성, 관광문화성, 관광복지성 순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관광자원개발 목표 가운데 관광환경성과 관련된 법규와 내용을 보면 조선물질문화유물 보존회규정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보물,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보존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자연보호구, 식물보호구, 바닷새 번식보호구 지정, 희귀동식물 보호·증식에 대한 내용이 있다. 토지법에서는 문화유적지 및 명승지 보존에 대한 내용이 있고, 환경보호법과 산림관리규정에서는 명승지, 경승지, 관광지, 휴양지구, 성터, 동굴, 폭포, 천연기념물, 명승고적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금강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금강산보호관리규정에서는 생태계 보호와 희귀동물 보존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40].

셋째, 개발형태 평가대상 가운데 남한에서는 특수목적 관광자원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327로 우선순위 1위였고, 이어 관광특구(단지)개발, 광역관광자원개발, 지역관광자원개발 순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에서는 관광특구(단지)개발이 상대적 중요도 0.470으로 우선순위 1위였고, 이어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 지역관광자원개발, 광역관광자원개발 순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에서는 관광특구(단지)개발 사례가 많고, 관광특구 및 유명지(관광단지)에 대한 자체 관광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근 칠보산지역 관광자원개발 및 명천지역 별장지대(휴양지대) 관광자원개발도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관광특구개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였다. 특수목적관광자원개발은 남한에서는 체험관광, 이벤트관광, 명소관광 등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지역관광자원개발은 명승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관광자원개발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광역관광자원개발은 북한에서도 평양관광자원개발계획 등과 같이 대규모 관광자원개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발주체 평가대상 가운데 남한에서는 제3섹터형이 상대적 중요도 0.292로 우선순위 1위였고, 이어 지방자치단체주도형, 국가주도형, 민간주도형 순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에서는 제3섹터형(합작투자형)이 상대적 중요도 0.464로 우선순위 1위였고, 이어 국가주도형,

민간주도형(외국인투자형), 지방정부도형(지방행정단위 주도형) 순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이 국가주도형이고, 국가사업인 영화촬영지 셋트장을 대상으로 한 관광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제3섹터형(합작투자형)에 대한 접근이 강한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1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1984),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1996)에 의하여 합작사업의 대상분야로 관광부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민간주도형(외국인투자형)은 100% 외국인 투자 형태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그 대상이다. 지방정부 주도형(지방행정단위주도형)은 극히 일부분이고, 내각산하 시·도인민위원회에서 지방관광행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소규모 관광자원개발사업이 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을 분석한 공동연구 결과는 남북한 관광교류의 다양화와 협력방안을 촉진시키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들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과 역할을 구명하고,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의 영향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관련연구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가능성도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시사점은 남북한 관광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관광개발 관련연구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관광정책개발과 관광자원개발 계획영역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한 관광사업개발 계획영역 및 관광서비스 관리영역에 대한 차별화와 평가대상들에 대한 기능의 세분화를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차원적 비교분석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Y. Kim & J. B. Jang,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Priority Order on the Approach Factor of Tourism Development Polic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5(2), pp.43-64, 2010.
- [2] S. I. Kim, "Tourism Developmen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and DMZ as the Alternative Tourism Resources", *KTO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Tourism Trend*, Vol 3(3), pp.45-57, 2009.
- [3] Y. B. Kim, et. al., "A Study on the Peaceful Utilization Strategy of the East Coast Border Reg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8.
- [4] G. H. Park, "The Korean Peninsula Tourism from the Mount Geumgang Tourism", *KTO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Tourism Trend*, Vol 1(3), pp.5-16, 2007.
- [5]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The Business Guide on the Cooper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n Tourism", 1999.
- [6] S. J. Jang, "The Product Development of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n Tourism Business", *KTO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Tourism Trend*, Vol 2(4), pp.29-42, 2008.
- [7] J. C. Joe,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pecial Tourism Zone in Shinuiju", *KTO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Tourism Trend*, Vol 1(3), pp.31-41, 2007.
- [8] Gyeonggi Research Institute,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s and Gyeonggi-do", 2006.
- [9] Ministry of Unification, "The Outline of the North Korea 2004", 2003.
- [10]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e Outline of the North Korea 2009", 2009.
- [11] C. W. Kim,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Prospects for the North Korean Tourism Resource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7.
- [12] J. C. Lee, et. al., "National Unific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Korea Tourism Promotion Institute*, 1995.
- [13] I. H. Yu & D. W. Ko, "The Relations of Residents' Environment Perception,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for Community Base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33(1), pp.157-179, 2009.
- [14] B. K. Kim & K. I. Cho, "An Analysis of Mass Media's Attitude on Large Scale Tourism Development: In Case of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s' of Korea",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5(5), pp.5-27, 2011.
- [15] H. R. Kim & J. J. Lee, "Comparative Study on Tourist Attractiveness of Culture Tourism Oriented Traditional Marketplace",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5(5), pp.63-77, 2011.
- [16] Y. T. Lee & S. T. Kim,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Local Tourism Governance in Special Tourism Zones",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5(4), pp.123-143, 2011.
- [17] J. D. Kim, "Formation of Tourism Governance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The Case of Gangwon Province",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1(3), pp.391-407, 2007.
- [18] D. W. Ko, et. al., "The Public Servants' Job-esteem and Job-satisfaction in Local Tourism Administration",

-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5(4), pp.227-243, 2010.
- [19] B. K. Yoon, "Study of Effect-Factor and Development Support on the Locals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of Taean Tourism Leisure City",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4(4), pp.23-41, 2010.
- [20] R. Buckley, et. al., "Cultural Landscape in Mongolia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35(1), pp.47-61, 2008.
DOI: <http://dx.doi.org/10.1016/j.annals.2007.06.007>
- [21] A. P. Russo & J. van der Borg, "Planning Considerations for Cultural Tourism: A Case Study of Four European Cities", Tourism Management, Vol 23(6), pp.631-637, 2002.
DOI: [http://dx.doi.org/10.1016/S0261-5177\(02\)00027-4](http://dx.doi.org/10.1016/S0261-5177(02)00027-4)
- [22] S. H. Yoon & J. Y. Park, "The Impact of Tourist Attractiveness of Traditional Markets on their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4(1), pp.57-73, 2009.
- [23] K. I. Cho & N. J. Kim,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Resident Attitudes to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6(2), pp.31-51, 2002.
- [24] B. Garrod,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Destination Imagery and Tourist Photography",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47(3), pp.267-274, 2009.
DOI: <http://dx.doi.org/10.1177/0047287508322785>
- [25] G. Marzano & N. Scott, "Power in Destination Brand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36(2), pp. 247-267, 2009.
DOI: <http://dx.doi.org/10.1016/j.annals.2009.01.004>
- [26] A. P. Russo & G. Segre, "Destination Models and Property Regimes: An Explor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36(4), pp.587-606, 2009.
DOI: <http://dx.doi.org/10.1016/j.annals.2009.04.002>
- [27] C. K. Lee,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Kangwon Land Resort Casino on the Gangwon Province Economy and Linkage Effects: Using a Survey-based Regional Input-Output Model",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4(2), pp.145-158, 2009.
- [28] D. Gursoy, et. al., "An Examination of Locals' Attitud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36(4), pp.723-726, 2009.
DOI: <http://dx.doi.org/10.1016/j.annals.2009.06.003>
- [29] C. U. Heo,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Phenomenons and Regional Identification",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5(4), pp.209-223, 2011.
- [30] L. Minnaert, et. al., "Tourism and Social Tourism: The Value of Soci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36(2), pp.316-334, 2009.
DOI: <http://dx.doi.org/10.1016/j.annals.2009.01.002>
- [31] A. Spiers & A. Walker, "The Effects of Ethnicity and Leisure Satisfaction on Happiness, Peacefulness, and Quality of Life", Leisure Sciences, Vol 31(1), pp.84-99, 2009.
DOI: <http://dx.doi.org/10.1080/01490400802558277>
- [32] Y. Zhou & J. Ap, "Residents' Perceptions towards the Impacts of the Beijing 2008 Olympic Gam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48(1), pp.78-91, 2009.
DOI: <http://dx.doi.org/10.1177/0047287508328792>
- [33] T. L. Saat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New Approach to deal with Fuzziness in Architecture", Architect Science Review, Vol 25, pp.64-69, 1982.
DOI: <http://dx.doi.org/10.1080/00038628.1982.9696499>
- [34] N. H. Kim, et. al., "The Study of Developing Evaluation Standard of Selecting a Tourism Development Project Applying AHP",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29(1), pp.249-266, 2005.
- [35] J. S. Lee, "An Analysis on Priority of Hotel Restaurants' Selection Attributes using AHP",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1(3), pp.81-95, 2006.
- [36] Y. H. Roh, et. al., "Developing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 for a Rural Traditional Theme Village Project: An Application of Analytic Hierarchy Program",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30(4), pp.191-209, 2006.
- [37] S. Y. Kim,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for Specialization Plan in the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Business applied on Analytic Hierarchy Process",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3(3), pp.7-22, 2009.
- [38] S. Y. Kim,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for Differentiation of Tourism Service in the Urban Tourism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4(6), pp.107-130, 2010.
- [39] C. Chen, "Apply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AHP) Approach to Convention Site Sele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45(1), pp.167-174, 2006.
DOI: <http://dx.doi.org/10.1177/0047287506291593>
- [40] G. W. Shon,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Prospects for the North Korean Tourism Resource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7.

김 사 영(Sa-Young Kim)

[정회원]



- 1990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문학석사)
- 1995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문학박사)
- 1993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
대학교 호텔관광과 교수

<관심분야>

관광개발, 여행사경영

장 준 복(Jun-Bok Jang)

[정회원]



- 1992년 3월 ~ 현재 : 김책공업
종합대학교 지질탐사학부 교수

<관심분야>

지질학(지모학), 관광개발